

2024년 10월 11일 공보 2024-10-1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4년 10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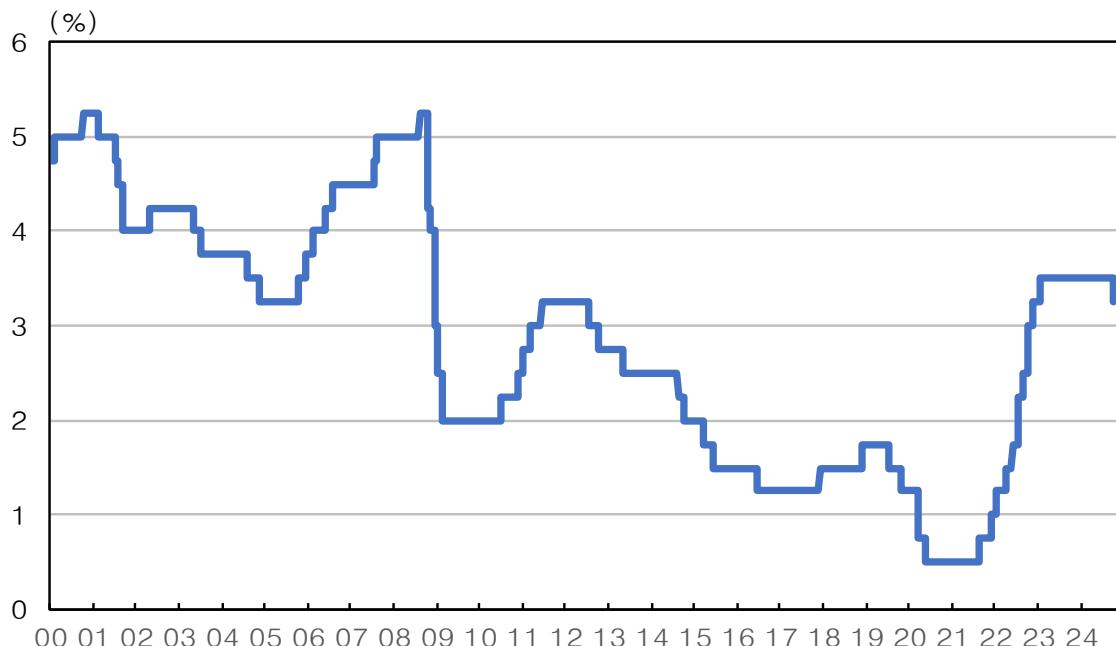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2022	2023	23.4/4	24.1/4	2/4	3/4	24.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5	2.9	3.2	1.6	3.0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8.9	3.4	0.8	-0.2	0.5	..	1.1	0.1
	산업생산 ¹⁾ (전기비, %)	3.4	0.2	-0.4	-0.4	0.7	..	-0.9	0.8
	ISM제조업 ²⁾ (기준=50)	53.5	47.1	46.9	49.1	48.8	47.1	46.8	47.2
	실업률 ¹⁾ (%)	3.6	3.6	3.8	3.8	4.0	4.2	4.3	4.2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623.5	353.1	61.7	77.1	57.7	48.5	14.4	15.9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0	4.1	3.2	3.2	3.2	2.6	2.9	2.5
유로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6.2	4.8	4.0	3.8	3.4	3.2	3.2	3.3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3.3	0.4	0.3	1.3	0.8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1.1	-1.9	0.3	-0.1	0.1	..	0.0	0.2
	산업생산 ¹⁾ (전기비, %)	2.2	-2.2	-0.1	-1.1	-0.4	..	-0.3	..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5.0	43.9	46.4	46.3	45.5	45.8	45.8
	실업률 ¹⁾ (%)	6.8	6.6	6.5	6.5	6.5	..	6.4	6.4
	수출 ^{1,3)} (전기비, %)	18.2	-0.8	0.6	0.8	0.6	..	0.8	..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4	5.4	2.7	2.6	2.5	2.2	2.6	2.2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0	5.0	3.7	3.1	2.8	2.8	2.9	2.8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2	1.7	0.2	-2.4	2.9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2.6	5.5	-0.9	0.0	1.8	..	0.2	0.8
	산업생산 ¹⁾ (전기비, %)	-0.1	-1.3	1.1	-5.2	2.7	..	3.1	-3.3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9.0	48.3	47.8	50.0	49.5	49.1	49.8
	수출 ¹⁾ (전기비, %)	18.2	2.8	2.8	-1.5	2.6	..	2.2	-3.9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3.2	2.9	2.5	2.7	..	2.8	3.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1	2.5	2.7	2.4	1.9	..	1.6	1.7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3.0	5.2	5.2	5.3	4.7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0.2	7.2	8.3	4.7	2.6	..	2.7	2.1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3.6	4.6	6.0	6.1	5.9	..	5.1	4.5
	제조업PMI ²⁾ (기준=50)	49.1	49.9	49.3	49.7	49.8	49.4	49.4	49.1
	수출(전년동기비, %)	5.6	-4.7	-1.3	1.1	5.7	..	7.0	8.7
글로벌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0	0.2	-0.3	0.0	0.3	..	0.5	0.6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2	-3.0	-2.8	-2.7	-1.6	..	-0.8	-1.8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3.7	-1.7	-1.5	-0.6	0.5	..	0.8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3	6월	7월	8.21일	8월	9월	10.10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25	4.75	4.26	3.93	3.92	3.64	3.96
	미국(10년물)	3.88	4.40	4.03	3.80	3.90	3.78	4.06
	독일(10년물)	2.02	2.50	2.30	2.19	2.30	2.12	2.26
	영국(10년물)	3.54	4.17	3.97	3.89	4.02	4.00	4.21
환율 ¹⁾	달러인덱스	101.3	105.9	104.1	101.0	101.7	100.8	103.0
	신흥시장국 ²⁾	48.1	45.9	45.9	46.1	45.9	46.2	45.5
	엔/달러	141.0	160.9	150.0	145.2	146.2	143.6	148.6
	위안/달러	7.11	7.26	7.22	7.13	7.09	7.01	7.08
주가 ¹⁾³⁾	전세계	727.0	802.0	814.2	827.5	833.7	851.8	848.2
	선진국	3,169.2	3,511.8	3,571.6	3,630.7	3,661.2	3,723.0	3710.7
	신흥시장국	1,023.7	1,086.3	1,084.8	1,100.9	1,099.9	1,170.9	1148.3
VIX ¹⁾		12.5	12.4	16.4	16.3	15.0	16.7	20.9
CDS프리미엄 ^{1)(bp)}	신흥시장국	167.5	174.7	169.3	163.2	162.0	162.5	163.7
	중국	59.6	66.1	63.2	61.2	57.3	59.6	62.6
	한국	27.2	36.2	34.5	34.0	31.5	31.3	32.0
유가 ¹⁾⁴⁾ (달러/배럴)	WTI	71.7	81.5	77.9	72.7	73.6	68.2	75.9
	Brent	77.6	86.7	81.5	79.6	80.0	72.9	73.2
	Dubai	76.5	84.9	79.5	76.9	77.1	72.5	77.2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증, 억달러)		57.8	122.4	242.2	64.6 ⁵⁾	133.2	319.7	420.7 ⁶⁾

주: 1) 기말 기준
4) 현물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5) 24.8.1~24.8.21일 기준

3) MSCI 기준
6) 24.10.3~24.10.9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2	2023	23.4/4	24.1/4	2/4	3/4	24.7월	8월	9월
GDP 성장률 ¹⁾	2.7	1.4	0.5	1.3	-0.2	..	-	-	-
(민간소비)	4.2	1.8	0.4	0.7	-0.2	..	-	-	-
(설비투자)	-0.3	1.1	2.8	-2.0	-1.2	..	-	-	-
(건설투자)	-3.5	1.5	-3.8	3.3	-1.7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0.3	-1.5	0.4	-0.5	-0.8	..	-2.0	1.7	..
설비투자지수 ²⁾	2.5	-4.9	5.0	-3.8	-0.2	..	10.2	-5.4	..
건설기성액 ²⁾	2.8	7.3	-2.5	4.9	-6.2	..	-0.7	-1.2	..
수출(통관) ³⁾	6.1	-7.5	5.7	8.1	10.1	10.7	13.5	11.2	7.5
- 일평균 ³⁾	(6.3)	(-6.8)	(9.6)	(8.9)	(10.9)	(10.7)	(6.7)	(13.6)	(12.9)
제조업생산지수 ²⁾	0.9	-2.6	2.2	-0.5	1.5	..	-4.1	4.1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7.0	3.2	0.3	0.8	-0.3	..	0.3	0.2	..
소비자심리지수 ⁴⁾	95.7	97.4	98.4	101.4	100.0	101.5	103.6	100.8	100.0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81	69	70	71	75	71	73	71	69
취업자수 증감 ³⁾⁴⁾	81.6	32.7	30.3	29.4	14.6	..	17.2	12.3	..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1	62.6	62.7	62.9	62.7	..	62.6	62.7	..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9	2.7	2.8	2.8	2.8	..	2.5	2.4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 가]

□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3.4/4	24.1/4	2/4	3/4	24.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¹⁾	5.1	3.6	3.4	3.0	2.7	2.1	2.6	2.0	1.6
	-	-	(0.7)	(0.7)	(0.3)	(0.4)	(0.3)	(0.4)	(0.1)
▪ 농축수산물	3.8	3.1	7.7	10.4	8.6	3.4	5.5	2.4	2.3
▪ 공업제품	6.9	2.6	2.7	2.0	2.1	1.4	2.6	1.4	0.3
(석유류)	22.2	-11.1	-3.6	-1.8	2.9	0.0	8.4	0.1	-7.6
(석유류 제외)	4.7	4.8	3.7	2.5	2.0	1.6	1.8	1.6	1.5
▪ 전기·수도·가스	12.6	20.2	10.1	5.4	3.1	2.4	1.0	3.3	3.0
▪ 서비스	3.7	3.3	2.8	2.5	2.2	2.2	2.3	2.3	2.2
(공공서비스)	0.8	1.3	2.0	2.1	2.2	1.5	1.9	1.4	1.3
(개인서비스)	5.4	4.8	4.0	3.3	2.8	3.0	2.9	3.0	2.9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6	3.4	2.9	2.5	2.2	2.1	2.2	2.1	2.0
(관리물가 ²⁾ 제외)	4.3	3.9	3.1	2.5	2.1	2.1	2.1	2.1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4.1	4.0	3.3	2.6	2.1	2.0	2.1	1.9	1.8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7	3.5	3.3	3.1	3.1	2.9	2.9	2.9	2.8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동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23	6월	7월	8.21일	8월	9월	10.10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15	3.18	3.00	2.94	2.95	2.81	2.96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18	3.27	3.06	3.00	3.09	2.99	3.09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48	3.44	3.35	3.27	3.26	3.16	3.13
CP금리 ¹⁾²⁾ (91일물, %)	4.32	4.17	3.92	3.62	3.62	3.62	3.62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89	3.64	3.46	3.46	3.51	3.40	3.51
(3년, BBB-, %)	10.33	9.73	9.49	9.42	9.43	9.26	9.41
KOSPI ¹⁾	2,655.3	2797.8	2770.7	2701.1	2674.3	2593.3	2599.2
원/달러 환율 ¹⁾	1,288.0	1376.7	1376.5	1336.6	1336.0	1307.8	1350.2
원/100엔 환율 ¹⁾	912.3	855.6	900.9	916.3	921.2	922.5	905.4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5.3	-0.1	-0.6 ⁴⁾	-2.9	-7.7	-0.5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4.8.1~24.8.21일 기준		5) 24.10.1~24.10.10일 기준					

-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2	2023	23.3/4	4/4	24.1/4	2/4	24.6월	7월	8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04.8	77.4	28.2	9.5	25.0	24.1	5.3	7.8	7.2
▪ 대기업	37.6	31.9	11.6	3.8	12.6	8.3	0.7	4.4	1.9
▪ 중소기업	67.2	45.5	16.6	5.7	12.4	15.9	4.6	3.4	5.3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2.6	36.9	17.6	15.2	3.5	16.9	5.9	5.4	9.3
▪ 주택담보대출 ¹⁾	20.0	51.6	19.0	16.6	10.1	16.4	6.2	5.6	8.2
▪ 기타대출 ²⁾	-22.9	-14.5	-1.4	-1.3	-6.4	0.5	-0.3	-0.1	1.1
주택 매매가격 ³⁾ (%)	-4.7	-3.6	0.4	0.1	-0.4	0.0	0.0	0.2	0.2
▪ 수 도 권 ³⁾⁴⁾	-6.5	-3.6	0.9	0.2	-0.4	0.2	0.2	0.4	0.5
(서 울) ³⁾	-4.8	-2.0	0.8	0.3	-0.2	0.6	0.4	0.8	0.8
▪ 지 방 ³⁾⁵⁾	-3.0	-3.5	0.0	0.0	-0.4	-0.2	-0.1	-0.1	0.0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보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